새끼우렁이농법 10만ha로 확대

어미보다 제초 효과 탁월·비용 50% 절감

전남도가 비용이 싸고, 환경교란 우려가 덜한 새끼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더욱 늘린다.

전남도는 "새끼우렁이 농법을 올해 친환경농업단지 4만ha와 일반답 6만ha 등 모두 10만ha(종전 1만8000ha)를 추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5년 말 저농약 인증 폐지되면서 유기농 인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농촌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끼우렁이농법은 쉽고 편리한데다 비용도 적게 든다.

또 우렁이농법은 잡초 방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우렁이농법은 모내기를 마치고 5~7일 후에 10a당 왕우렁이 3~5kg(600~1250마리) 가량 넣어주는데 95% 이상 잡초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생 잡초인 피·물달개비·여뀌바늘·알방동사니·외풀류와 다년생 잡초인 올챙이고랭이·올방개·벗풀 등에도 잡초 방제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초제 사용량이 크게 줄고 농가 생산비도 대폭 감소해 올해 우렁이농법으로 절감한 제초제 1630t에 이른다. 비용면에서도 10a당 새끼우렁이농법이 1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제초제는 1만2000원선이다.

그동안 우렁이 농법에는 어미 왕우렁이가 이용돼 왔지만, 지난 2009년 전남도농업기술원 조사결과 새끼우렁이가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슈퍼잡초까지 99% 이상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새끼우렁이 농법이 더욱 늘었다.

새끼우렁이농법은 제초효과가 뛰어나 노동력 절감과 함께 제초제 대비 비용을 5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어미 왕우렁이에 비해서도 비용을 40%까지 절감할 수 있어 1석 3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남도 전종화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가에서는 마을과 들녘단위로 미리 새끼우렁이 생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농사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렁이는 농약 대신, 논 잡초를 없애줘 깨끗한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사진은 논에서 우렁이를 잡고 있는 어린이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화순군, 도곡에 주말농장 운영

화순군은 주 5일 근무제 및 수업제로 늘어나는 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인근에 주말농장을 조성, 운영한다.

군은 주말농장 5000㎡를 조성해 가족당 15~33㎡ 텃밭을 분양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150가족이고 분양가는 15㎡은 2만원, 33㎡은 3만원이다. 신청자격은 도시민을 기준으로 한다.

화순 군민인 경우는 비농업인이어야 하며, 가족과 자녀를 동반해 농촌체험을 원하는 경우 가능하다.

주말농장은 인근 도곡면 '모산 녹색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게 되며, 농작물 재배 지도와 그늘막 쉼터 설치 등 도움을 주게 된다.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도곡면사무소(061-379-5073)로 접수하면 된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목포시 상수도 누수 줄여 5억 절감

목포시가 상수도 유수율(有收率=수돗물 생산량중 요금수입으로 돌아오는 비율)을 향상시켜 5억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을 마련, 전년도 대비 상수도 유수율을 3.3% 향상시켜 73.3%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용당2동 연동 천주교~진선미 슈퍼 등 19개소에 대한 배수관을 신설하거나 교체하고, 만호동 제일은행 주변 등 7개 구역에 대한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해 총 3988개의 계량기를 교체했다. 또 연동초등학교 주변 등 15개소에 대한 장거리 다발 급수관 통합 정비 공사도 실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 유수율 3.3%를 제고해 당초 70%에서 73.3%로 향상됐다.

박소영 사업단장은 "올해 말까지 75% 달성을 목표로 유달 양수장~갑자옥 모자점 등 15개소에 대한 배수관 신설하거나 교체하고, 용당1동 제일고 주변 등 8개 구역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실시해 노후 계량기 3800개를 교체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눈부신 봄날 '할미꽃 나들이'

장흥군 15일까지 한재공원서 체험행사

'제7회 할미꽃 봄나드리 행사'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한재공원에서 열린다.

한재공원은 능선 10여만㎡에 걸쳐 할미꽃이 자생하고 있는 전국 최대 할미꽃 군락지이다.

장흥군 주최·회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할미꽃 봄나들이'는 할미꽃 체험과 할미꽃 화분만들기, 야생화 전시, 봄나물(쑥·쑥미나리·다래 등) 판매 등 다채롭게 마련된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축제인 '당신도 예술가' 프로그램을 비롯해 연날리기와 투호놀이, 다트게임, 탁본체험 등 다양한 가족 체험행사가 함께 열린다.

이와 함께 회진면 앞바다 갯벌에서 직접 잡아올린 싱싱한 낙지와 감태전 등 청정 해산물도 함께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점도 운영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어느해 보다 할미꽃 군락지의 개화율이 양호해 사진작가와 야생화 마니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 천관문학관 전시실에서는 고 이청준 작가의 '할미꽃은 봄을 세는 술래란다'라는 주제로 송대성 화가의 할미꽃 그림 전시회가 14일부터 6월13일 까지 열린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팔영산 12억 들여 '국민쉼터'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탐방로·야영시설 정비

지난해 1월 도립공원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지구로 승격된 고흥 팔영산에 탐방로와 야영장 등 자연친화적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소장 김용무)는 올해 팔영산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탐방객 중점 이용시설인 탐방로와 자동차 야영장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정비내용은 ▲팔영 야영장~남포 미술관 주 탐방로 1.2km정비 ▲팔영산 자동차 야영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 정비 ▲팔영산 주차장 신규조성 ▲탐방지원센터 신축 ▲자연학습장내 자연관찰로 정비 ▲평촌리 마을 지구내 명품마을 조성 등이다.

특히 자동차 야영장은 캠핑 마니아들을 위해 개인 사이트별 전기공급 시설을 도입해 사계절 야영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야영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최근 고흥군 점암면 팔영산 평촌마을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살려 탐방객들에게 사랑받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청산도 유채밭 사이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유채가 만발한 돌담길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완도군은 청산도 슬로길(11코스·42.195km)에서 30일까지 '제 4회 슬로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완도군 제공〉

참조기 지침서 나왔다

해양수산과학원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원장 임여호)은 최근 참조기 종묘 생산과 양식기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참조기 양식 기본 지침서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한 '참조기 양식기술' 지침서(총 70쪽 분량)는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소에서 지난 2003년부터 수행해온 연구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이번 지침서는 참조기 양식을 시도하는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관심있는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계속적인 연구와 산업적 응용의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조기 국내 소비량은 8만여t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해마다 어획 생산량이 줄어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다. 전남의 어획량은 국내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서해안 특산 품종인 참조기의 양식 산업화를 목표로 종묘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지난 2006년 참조기 인공종묘 대량생산 기술을 정립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칠산바다 등 서해연안에 18만5000여마리의 참조기 인공 종묘를 방류해왔다.

임여호 원장은 "지침서를 통해 참조기 인공종묘 양산 체제를 확립해 연안어장 참조기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